
멕시코-미국 국경 : 비대칭성과 위반

알베르토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멕시코 프론테라 노르테 대학교 교수

원제와 출처: Alberto Hernández Hernández, “La frontera México-Estados Unidos: asimetrías y transgresiones”, *Nueva Sociedad*, No 289, septiembre-octubre de 2020, pp. 59-69.

핵심어 : 국경, 합법성, 이민, 기회, 위반, 미국, 멕시코

국경이란 근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경계이다. 때로는 물리적 경관의 본성을 따른 듯이 보이기도 하는데(자연 국경), 리오 브라보 강이 국경의 반을 차지하는 멕시코 미국 국경이 그러하다. 이런 가름에는, 국가의 경계를 구분 지으려는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 상호 작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아주 가까운 국경도 있다. 이런 국경의 특성은, 라틴아메리카 몇몇 나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역사적 문화적 측면의 역동성과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토가 넓으면 넓을수록 국경으로 나뉜 현실은 더욱 대조된다.

국경은 지리적 특성과 길이에 따라서 변모의 조건과 맥락이 다르다. 장기간에

결쳐 정태적인 국경도 있다(경우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을 띤다). 또 엄밀한 의미의 하부구조와 정책에 기인하여 변모할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은, 최근 30년 동안 크게 변모한 멕·미 국경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 현재 세계를 보면, '사라지고 있는' 국경이 있는 것 같다. 비록 지정학적이고 국가적인 국경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비공식 시장의 범위라는 측면이나 국경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 준합법적으로 작동하는 단체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국경 지방

멕시코는 미국, 과테말라, 벨리즈, 이 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멕시코

〈그림 1〉 멕시코 북쪽 국경 지방



출처: 필자 작성.

북쪽 국경의 절반은 멕시코만을 지나서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리오 브라보 강(북동쪽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사막과 준사막 지역(북서쪽 지역)으로, 태평양 연안의 티후아나까지 펼쳐져 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멕·미 국경은 3,200km에 조금 못 미치는데, 미국 쪽에서 보면 텍사스 주, 뉴멕시코 주, 애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의 48개 카운티가 포함되고, 멕시코 쪽에서 보면 바하칼리포르니아 주, 소노라 주, 치우아우아 주, 코아우일라 주, 누에보레온 주, 타마울리파스 주의 94개 무니시피오가¹⁾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멕시코 쪽 도시가 훨씬 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 쪽 도시가 훨씬 더 크지만, 총 15개 도시가 국경 양쪽에 쌍둥이처럼 포진하고 있다. 멕시코 쪽 국경 도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시우다드 후아레스와 티후아나이고, 그 뒤로는 멕시칼리, 노갈레스,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누에보 라레도, 레이노사, 마타모로스 순이다. 이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300만 명이며, 10개 도시권에 살고 있다.²⁾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월경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동네에 사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대다수는 북적거리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수준의 정책 수립에서 복잡한 문제는 국경마다 독특한 사정이 있다는 데 있다. 멕시코는 연방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이며, 국경 지역의 사안은 대부분 연방 정부가 결정한다(물론 실무적인 문제는 지방 정부 소관이다). 이러한 국경 지역은 멕시코 중앙에 있는 지역과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영토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요구하는 바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가끔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중앙 지역은 국경 지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특별대우가 때로는 동질 국가라는 의미를

1) 무니시피오(municipio)는 멕시코의 기초 행정 구역 단위이다(역주).

2) Rafael Prieto Curiel, "Los trece millones de la frontera" en *Punto Decimal*, 17 de abril de 2016.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멕시코 북쪽 국경 지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북쪽 국경 지역 주민이 스페인어를 쓰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 다시 말해서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이웃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북쪽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하거나 멕시코인과는 상이한 행동방식을 취하거나 할로윈 데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미국 문화에 동화됨으로써 멕시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통념이 한동안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중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한층 강력한 멕시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경 도시에 사는 주민의 이주 시기가 상이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멕시코 국경, 특히 티후아나와 샌디에고의 국경은 서구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빈번한 곳이다. 이들 도시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 규모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국경 지역의 통행에 관한 2017년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멕시코 외교부의 추산에 따르면,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주민과 약 30만대의 차량(이중에서 화물차는 7만대 이상이다)이 합법적으로 국경을 오가고 있다.³⁾ 여기에서 고려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멕시코 국경은 멕시코와 미국 양쪽에서 사회적 경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상업, 관광, 노동 시장, 재화와 생산물의 구매 등)에서 광범위한 상호 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3) Centro Gilberto Bosques, "Panorama actual de la frontera entre México y Estados Unidos", nota informativa, Senado de la República, 2017.

멕시코와 미국 간 국경 교류

국경 지역의 상호 작용은 멕시코 정부에게는 상당한 위협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약 30만 대의 차량이 매일 양국을 넘나들고 있다. 그렇지만 월경의 동기와 목적은 상이한데, 이는 제각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표-1]에서 보듯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문(교량과 검문소)은 53곳이다. 이 가운데는 상품과 같은 화물 운송에 특화된 곳도 있어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 물량의 대부분이 이런 관문을 통해서 운송된다. 어떤 관문은 소형차용이고, 어떤 관문은 소형차와 화물차가 함께 다닌다. 또 도보자 전용 관문도 있다. 유서 깊은 철교도 있는데, 19세기 말 멕시코는 이런 철교를 통해서 미국과 교류했다. 현재 육로를 통한 멕·미 무역의 72%는 4개 도시(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누에보 라레도, 레이노사)가 담당하고 있다. 물류라는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에는 1,000만대 이상의 화물차와 화물 열차가 멕시코

[표-1] 멕·미 국경의 관문(교량과 검문소)

멕시코	관문(교량과 검문소) 수	미국
누에보레온	1	텍사스
치우아우아	3	뉴멕시코
치우아우아	9	텍사스
코아우일라	6	텍사스
바하칼리포르니아	7	캘리포니아
소노라	10	애리조나
타마울리파스	17	텍사스

출처: 미대사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물품을 운송했다.⁴⁾

대부분의 관문은 무료이지만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곳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 사정에 따라서 월경 방식이 다르다. 멕시코 북부의 몇몇 주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여럿이지만, 어떤 주는 통행량에 비해 관문이 부족하다. 바하칼리포르니아 주가 그러한데, 8개 관문 가운데 4개소가 티후아나에 있으며, 멕·미 국경을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 대다수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북동쪽 끝에 있는 뉴에보 레온 주는 화물 전용 관문 하나만 있다.

중요한 사실은, 각 주(특히 미국의 주)의 정치적·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국경의 상호 작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는 완전히 다른데, 이 두 주의 정치적 온도차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극심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진보적인데 반해, 텍사스 주는 “남부 보수 세력의 원조”에⁵⁾ 속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는 이민자에게 ‘성지’ 같은 곳이며, 그 대척점에 해당하는 곳은 텍사스 주와 애리조나 주다.⁶⁾ 이 때문에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민을 대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불법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나 천연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부유한 주에 속한다는 점도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요인이다.⁷⁾

4) Departamento de Transporte de EEUU, Oficina de Estadísticas de Transporte, “Border Crossing/ Entry Data”, <www.bts.gov/content/border-crossingentry-data>.

5) Dana R. Carney, John T. Jost, Samuel D. Gosling y Jeff Potter, “The Secret Lives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Personality Profiles, Interaction Styles, and The Things They Leave Behind” en *Political Psychology* vol. 29 No 6, 2008.

6) Benjamin Gonzalez, Loren Collingwood y Stephen Omar El-Khatib, “The Politics of Refuge: Sanctuary Cities, Crime, and Undocumented Immigration” en *Urban Affairs Review* vol. 55 No 1, 2019.

7) David E. Hayes-Bautista, *La nueva California: Latinos in the Golden Sta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2004.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에 있는 관문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 일반적인 방식은, 어떤 사람이든 입국 서류 이외에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용 통로를 통해서 월경하는 방법도 있다. 신속 통과라는 방식도 있는데,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치과, 안과를 포함하여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할 경우 10달러를 내면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이 특별차를 이용하여 곧바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생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국경을 건널 수 있다. 이 방식은 입국자가 검색대에 다가가면 이민 서류가 칩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신호를 전달하고, 이런 정보가 입국 검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입국 여부가 신속하게 판가름난다.

저위험 여행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다. 이른바 ‘여행자 신속 검색 안전 전자 네트워크’(Sentri: Secure Electronic Network for Travelers Rapid Inspection)라는 것인데, 자주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하다. 이는 가장 빠르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입국자는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이 센트리(Sentri) 카드만 보여주면 된다.⁸⁾ 이 프로그램은 여행자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공식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평판이 좋고 또 미국에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멕시코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하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최신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멕시코로 넘어올 때는 사뭇 다르다. 최소한의 경계만 하며,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검색도 사실상 하지 않는다. 현재 멕시코는 여행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얼마간의 돈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자는 출국자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다. 티후아나에서는 주말에 나이트클럽이나 바나 기타 ‘성인’ 오락장에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티후아나는 ‘범죄 도시’라는

8) Oscar J. Martínez (coord.), *US-Mexico Borderland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Rowman & Littlefield, Lanham, 1996.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게다가 멕시코에서 성년 연령은 18세인데, 미국은 21세라는 점도 이런 이미지 형성에 한몫하고 있다.

북쪽 국경 지역의 안보, 상업, 노동

또 하나 고려할 문제는, 국가 수준에서 항상 최우선 사안으로 여기는 안보 취약성이다. 현재도 불법 이민자와 조직범죄는 골칫거리인데, 특히 멕시코 북쪽 국경 지역이 마약 밀매의 주요 루트가 된 이후에는(이로써 국경 지역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더욱 그러하다.

2001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받은 이후 멕·미 국경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전에는 개방적이고, 월경이 쉬웠으며, 경계도 심하지 않아서 왕래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 2001년 이후 테러리스트가 또 공격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미국의 언론매체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멕시코를 통해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물론 현재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로지 멕·미 국경 순찰을 강화하려고 주방위군까지 동원하는 일만 벌어졌다. 이로써 자유무역협정을 뒷받침하는 개방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문제시되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최근 ‘멕시코, 미국, 캐나다 협정’(T-MEC)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 한편, 안보, 통제, 테러, 무기와 마약의 거래, 조직범죄는 여전히 멕·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멕시코는 한 세기 전부터 미국의 주요한 일손 공급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농촌, 광산, 철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분야에서 일손이 필요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미국은 멕시코와 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을 마련했다. 이로써 멕시코 노동

자들은 특별 계약을 맺고 한시적으로 미국에 들어가 일할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 국경 쪽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민자 입국 통제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1964년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만료되자 불법 이민자가 급증했고, 국경 도시는 점점 수백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원래는 미국으로 넘어가려던 사람들이 부득이 국경 근처의 도시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자 도시 계획은 엉망이 되고,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도 부족하게 되었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국경은 특정 산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마킬라도라는⁹⁾ 북쪽 국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국경 쪽 멕시코 주의 3000여 곳 마킬라도라에서 일하는 주민은 어림잡아 1,600만 명으로 증가했다.¹⁰⁾

변화, 대조, 장벽

전에는 국경순찰대의 감시 아래 몇몇 지점의 국경을 열어줘서 단기간이나마 서로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조치는 양국이 가깝다는 상징성을 띄고 있었다. 비록 단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장벽을 두고 갈라진 가족은 해후할 수 있었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결혼도 가능했다. 철문이 열리면 약혼자가 건너가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었다. 또 1990년대에는 티후아나 해변에 설치된 철책 국경 양쪽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철책 틈을 통해서 음식을 나눠먹는 아이들과 가족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광경은 새 장벽이 설치되고 보안 절차가 점차 엄격해지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9) 마킬라도라(maquiladora)는 '수출용 조립 공장'이라는 뜻이다(역주).

10)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INEGI), "Estadística del Programa de la Industria de Manufactura, Maquiladora y Servicios de Exportación (IMMEX)", diciembre de 2019.

아무튼 멕시코 국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민자 통제 정책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이민자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국에게 일련의 조치를 요청했지만, 중미 이민자들(과테말라인, 엘살바도르인, 온두라스인)이 멕시코로 들어옴으로써 큰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미 이민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이민국 경찰과 직원을 확대 책임자라고 반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게다가 인신 매매와 강탈을 일삼는 조직범죄단의 수중에 떨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패리독스는 멕시코가 미국보다 앞장서서 중미인을 추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수는 미국에서 추방당한 멕시코인보다 많다.¹¹⁾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맥·미 국경에는 철사줄만 쳐놓았다. 그래서 철사줄을 들어올리거나 그 밑으로 월경할 수 있었다. 몇 년 뒤에 철조망이 등장했는데, 이런 장애물은 사다리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민자들이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게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철제 장벽이 등장했다. 빌 클린턴 정부가 실시한 ‘국경 순찰 강화 작전’(Operation Gatekeeper)의 일환이었다. 이 장벽은 걸프전에서 나온 고철로 만들었다.

두 번째 장벽은 조지 부시 집권기에 들어섰다. 처음 설치된 장벽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했다. 그런데 어떤 구역에서는 새 장벽을 세울 때 이전 장벽을 철거하지 않아서 신구 장벽이 나란히 있는 서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의 장벽 설치로 몇몇 구역은 장벽이 세 개가 될 전망이다. 이런 장벽 구축에는 으레 정치 선전이 뒤따른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국 당국이 멕시코 국경을 봉쇄할 목적에서 자

11) Nina Lakhani, “Mexico Deports Record Numbers of Women and Children in us-Driven Effort” en *The Guardian*, 4 de febrero de 2015.

극적인 말로 강조하는 위협은 안보다.

미국이 국경 안보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강화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또 하나 강조할 점은 지정학적 국경이 생체 정보 국경으로 변했다는 것이다.¹²⁾ 생체 정보 국경이란 미국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다. 이로써 여권이나 비자를 위조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다. 이제 서류는 옛말이 되었고, 생체 정보 시스템에 나타난 것으로 결정된다. 이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제 몸이 비밀번호가 된 것이다.¹³⁾

멕시코 북쪽 국경 지역 주민을 위한 직간접적인 혜택

멕시코 국경 지역의 주민 3분의 1만이 미국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합법적인 서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엄격한 의미는 아니지만,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옷가지, 가구, 물품일지라도 멕시코에서는 중고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저쪽에서 넘어온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¹⁴⁾

이런 의미에서, 멕시코 북쪽 국경은 결코 정태적이 아니다. 국경이라는 공간은 상호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역동적인 경향을 보인다. 예전에 국경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영역이었다. 매우 방대한 공간이지만 인구는 희박했고, 비록 경제적 교류가 있었다고는 하나 잊혀진 사람들의 땅이라는 국경의 이미지는

12) Louise Amoore, “Biometric Borders: Governing Mobilities in the War on Terror” en *Political Geography* No 25, 2006.

13) A. Hernández y Amalia Campos-Delgado (coords.), *Líneas, límites y colindancias. Miradas a las fronteras desde América Latina*, El Colef, Tijuana, 2015.

14) 필자는 민감한 문제라고 인식했는지 무척이나 예두른 표현을 동원하고 있다(역주).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국경은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돈을 벌고, 좀 더 좋은 음식, 주택, 자동차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경의 인구가 증가했다.¹⁵⁾ 그리고 출신 지역의 노동 조건이나 교육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경에 정착한다고 생각했다.¹⁶⁾

공간으로서 국경 : 합법성과 불법성

국경의 또 다른 패러독스는 한쪽에서는 금지된 것이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마리화나의 재배, 판매, 사용이 합법적이다. 의약품용 뿐만 아니라 유흥 목적으로도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반면에 멕시코에서는 마리화나를 엄금하고 있으며, 재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은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하거나 휴대할 수 있지만, 멕시코에서는, 비록 수많은 총기가 밀반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총기 구매와 휴대는 금지되어 있다. 또 멕시코 쪽에서 보자면 과일, 육고기, 식물, 꽃 등은 미국으로 들여갈 수 없다.

15) Rodolfo Cruz Piñeiro, "Evolución y cambios recientes de la dinámica migratoria y características socioeconómicas de la frontera norte de México" en José Luis Ávila, Héctor Hernández B. y José Narro R. (coords.), *Cambio demográfico y desarrollo de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Ciudad de México, 2014.

16) Gabriel González, "Determinantes en la satisfacción de vida de las personas en las ciudades de la frontera norte de México" en *Realidad, Datos y Espacio* vol. 7 No 1, 2016.

[표-2]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반입 금지 품목

멕시코 반입 금지 품목	미국 반입 금지 품목
- 무기와 총탄	- 헤로인, 코카인, 마약 관련 용품
- 대마초와 그밖의 정신 활성 물질	- 무기와 총탄
- 차량, 중고 타이어	- 황금
- 가구, 중고 전자제품	- 1만 1달러 이상의 현금
- 농축산물	- 민간 조제 약품
- 진기한 애완동물	- 주세 납필증이 없는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
- 화석 연료	- 아바나 시가
- 헌옷	- 돼지고기, 날고기
	- 과일, 야채
	- 생선, 야생 동물
	- 꽃, 식물, 씨앗

출처: 미국대사관과 세관 및 멕시코 관세청 자료에 의거하여 필자가 재구성.

코로나 바이러스19 이후의 국경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세계적 유행 때문에 2020년 초반 이후 국경 지역에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 3월에 멕시코 정부와 미국은 양국 사이의 “불가결하지 않은” 여행은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하지만, 이런 조치로 관광 여행은 휴지기를 맞이했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 제약 조건은 더 많아졌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도 축소되고, 입국 허가가 떨어진 인원도 국경을 통과할 때 바이러스 신속 검사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국경의 부분 폐쇄는 양국 사이의 공식적인 무역(이는 지속적인 인적 교류에 달려 있다)뿐만 아니라 국경에 인접한 지역의 비공식적인 무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의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는 멕시코와 미국 양쪽 모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 국경 서쪽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와

바하칼리포르니아가 가장 심각했다. 비록 국경이 부분적으로 폐쇄되었으나 국경 양쪽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이번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멕시코와 미국 간 교류는 지속되고 있다.

박병규 옮김